‘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육성한

세계 최고의 엘리트 혁신조직, 탈피오트 정신

윤종록 여시재 특별연구원

(한양대학교 특훈교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여시재
Future Consensus Institute

[머리말]

제조업을 근간으로 20세기 경제기적을 만든 나라가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하는 대한민국이었다면 21세기 경제기적을 만든 나라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이스라엘일 것이다. 한때 미국 나스닥 상장사의 수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였으니며 국가의 별명이 <창업국가> 이기도 하다.

이 나라가 원래 혁신적인 창업국가였던 것은 아니다. 세계 70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독립 후 물밀듯이 들어오는 가운데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협동농장인 키부츠를 만들어 유대인들을 먹여 살려야만 했다. 근면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했고 제3차중동전쟁(6일전쟁)으로 영토를 3배나 넓힐 수 있었고 하드파워를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6년만에 제4차 중동전쟁(욤키프르전쟁)으로 처철한 실패를 맛보면서 크게 반성하게 된다. 근육의 힘, 하드파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뇌의 힘을 강화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엘리트조직, 탈피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의 역동적 성공 모델을 통해 교육, 문화, 금융, 정치, 규제 등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일거에 바꾸게 된 것이다.

독립 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6일전쟁 이전과 욤키푸르전쟁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하드파워가 강한 이스라엘이라고 본다면 후자는 두뇌의 창의력,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이 혁신경제를 지향하는 변곡점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엘리트 조직, 탈피오트의 정신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강점인 빨리빨리 문화와 좋은 머리를 통해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리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가를 창업한 이스라엘의 국부, 시몬 페레스

자원은 없으나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 이스라엘은 2천년의 디아스포라를 거쳐 1948년 유엔의 , 결의로 우리와 같은 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국되었다. 2천년을 돌아서 되돌아온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연간 강우량 400mm의 사막, 거기서 자라는 잡초 외엔 아무 것도 없었다. 이들이 건국을 앞두고 준비한 것은 무려 건국 36년 전인 1912년, 아직 국가의 울타리도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하이파에 '테크니온대학'을 먼저 개교하는 것이었다. 우리로 치면 카이스트에 해당한다. 자원이 없기에 두뇌의 상상력을 통해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테크니온 공과대학은 히브리대학과 텔아비브대학의 산학연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특허 사용료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며 학생의 40%가 창업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창업국가'를 만들어 보답했다. 전 세계의 인터넷 보안, 데이터 저장, 인공지능, 제약 물질, 방어무기, 물 관리 면에서 세계의 첨단을 달리고 있다. 특히 52센트의 전력으로 바닷물 1톤을 담수로 바꾸는 기술은 세계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며 연간 소요량 5.5억톤의 90%에 해당하는 5억톤을 해수

담수화로 해결한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와 극명하게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부족함이 핸디캡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들이다. 그것은 상상을 혁신으로 바꾸는 소프트파워에서 가능하다.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국민, 창의적 교육환경, 규제완화, 혁신금융,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청년 등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가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에 21살의 젊은 나이에 갓 태어난 이스라엘 초대 수상, 벤구리온의 참모로 출발하여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70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정치인이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로 출발하여 2013년 대통령을 마쳤다. 사막위에 갓 태어난 나라를 21세기 최고의 창업국가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다. 그간 10번의 장관, 3번의 수상, 오슬로협정을 맺은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추대를 받아 8년간 대통령을 하였고 2016년, 93세를 일기로 생을 마친 '나라를 창업한 분'이다.

신생국가의 자강을 위해 무기를 밀수하여 국방부를 만들고 고물 비행기를 들여와 재조립하여 항공산업을 일구어 냈으며 프랑스와의 비밀 접촉을 통해 원자력 기술을 들여와 핵보유국으로써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외형적으로는 핵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 다 시몬 페레스가 상상력을 도전으로 연결하여 직접 일군 성과다. 지독한 매파였던 페레스가 치명적인 핵무기를 가진 이후 새로이 도전한 것은 중동평화였다. 아랍권과의 악수를 통해 영구히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오슬로협정을 이끌어 노벨평화상을 받음으로써 비둘기파로 전향하며 그 후 그의 모든 노력은 세계평화로 귀결된다. 비록 이스라엘 내부 극우파의 반대로 다시 적대적 관계로 정세가 바뀌었지만 힘을 가진 후에 평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이스라엘의 입지를 확고히 한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의 실패로 인해 페레스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회적 반성운동이 일어나고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하드파워 중심의 이스라엘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한 소프트파워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장 창의적인 나이의 젊은이들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했고 최고의 엘리트 육성 프로그램으로 탈피오트 과정을 만들게 되었다.

페레스의 지원하에 국방부, 경제부, 과학부, 산업부가 부서간 벽을 허물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30년간에 걸쳐 완성된 이 프로그램이 창업국가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담긴 정신은 유대인의 후츠파정신과 융합하여 폭발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페레스 대통령의 리더십이 도화선이 되어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리더십으로 연결된 탈피오트 정신을 통해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문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스라엘 탈피오트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리더들에게 전하는 유대인들의 혁신적 도전정신의 원천을 우리의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혁신을 위한 파괴 (거꾸로 보이는 거울, 플립미러를 준비하자)

세상만사는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위로 올라가는 녹색 그래프와 아래로 내려가는 빨간 그래프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차한다. X축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Y축으로 영원히 올라가는 그래프는 아직껏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원히 내려가는 그래프도 없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내리막곡선의 끝 지점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다. 이를 턴 어라운드(Turn around) 지점이라고 부른다. 이 지점에는 반드시 혁신이라는 공신이 숨어있기 마련이다. 과거에 우리는 자기테이프에 목소리와 데이터를 저장했으나 이내 CD가 등장했고 마침내 USB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만다. 이 세가지는 정보저장장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사실은 전혀 다른 기술 혁신이다. 세 마디 마디 마다 혁신이라는 파괴적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세상은 혁신을 통해 내리막을 오르막으로 바꾸는 자의 것이다. '피터 틸'은 그의 저서 '제로투원(Zero to One)'에서 혁신이란 o을 1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경제를 1을 n으로 바꾸는 현상으로 비유한다. 스스로 파괴를 통해 혁신에 이르는 무혈 혁명을 만들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는 흔치 않은 경우다. 반면에 처절한 외부로부터의 파괴를 통해 피동적으로 혁신에 이르는 유혈 혁명도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둘 다 혁신의 좋은 계기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처절한 외부로부터의 파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지못하는 상황이 최악의 경우다.

2000년만에 국가를 건설한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팔레스타인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테러에도 불구하고 200만에 불과한 인구로 2억명의 주변 아랍 진영의 도전을 불과 6일만에 격파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들은 무력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그들의 과학적 사고와 시스템적 방위체계는 적어도 전근대적 비합리적 사고의 주변국가에 더 이상 비할 바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불과 6년, 그들은 유대인의 가장 신성한 날인 욤키푸르 안식일에 무차별 공습을 받아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든 좌절을 겪게 된다. 그들의 일상은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와 주변국가에 대한 우월감의 상실로 정신적 황폐화라는 후 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물리적 손실에 비할 바 없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파괴는 두 사람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혁신의 도화선을 준비하게 한다. 답은 소프트파워였다. 하드파워가 강한 이스라엘은 딱 6일전쟁까지였다. 욤키푸르 전쟁을 계기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국가 건설의 새로운 혁신에 시동을 걸게 한 것이 탈피오트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처절한 전쟁의 참상에서 더 이상 하드파워의 강화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의 힘과 가치에 눈을 돌린 것이다. 물론 기존 국방 조직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땜질 처방이 아닌 체질개선을 택한 것이다. 경영 환경이 광속으로 변해가는 환경은 6일전쟁에 안주하는 모드가 아니다. 욤키푸르 전쟁을 예방하는 조치는 자신감에 차있는 호황기에 이미 스트레스 모드로 작동했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는 누구나 혁신을 꿈꾼다. 그러나 정작 욤키푸르 전쟁은 축제의 나팔을 울리던 6일전쟁 직후부터 이미 준비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투명한 그림자는 일단 현실을 뒤집어 보는 '플립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플립거울은 나의 모습을 정 반대로 보이게 하는 '거꾸로 거울'이어야 한다.

2. 탈피오트, 최고 중 최고를 지향하라

6일전쟁의 승리가 가져다준 자만심, 그리고 욤키푸르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폐허가 가져다준 처방전은 응급조치 수준이 아니었다. 뇌를 새로이 이식하고 막힌 심장을 뚫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였다. 손으로 만져서 병을 알아내는 경험 의존적 처방이 아니라 환부의 확실한 영상을 투영하여 정확히 도려낼 부분을 확인하고 처치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법이 아니고서는 호시탐탐 노리는 적을 코 앞에 두고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적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간의 인적자원은 인간의 근육이었다면 근육은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 이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 후 키부츠를 통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근면, 성실을 기반으로 사막을 옥토로 일궈냈다. 우리의 새마을 운동에 영감을 심어줬던 그들이다. 적어도 6일전쟁까지는 그들의 하드파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작동해왔지만 불과 6년만에 처참히 무너진 욤키푸르 전쟁으로 인해 이제 근육의 힘만으로는 주변 2억의 아랍권을 제압하는데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변화의 돌파구는 환골탈태라는 외형의 변화로는 부족하였다. 두뇌를 바꾸고 심장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두 명의 교수들에 의해 싹이 트였고 그들은 '더 나은'이 아닌 '최고 중의 최고'를 의미하는 탈피오트를 목표로 출발하였다. 그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군사력이 아닌 연구와 교육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훨씬 더 큰 가치와 힘을 만들어 내는 소프트파워를 강조한 것이다. 당연히 아직도 무기를 신봉하는 군부의 저항이 따랐지만 두 사람의 의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대 명제가 확고하였기에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 넘을 만한 힘을 실을 수 있었고 마침내 최고의 엘리트 국방프로젝트 탈피오트를 출발시킨다. 이들의 생각은 확고하다. 인간의 생물학적 나이는 20대에 창의력이 정점에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하교 졸업생이라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 중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쳐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며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특별한 자유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21세기 경영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한다. 그 변화는 거의 모두가 개선(Improvement)가 아니라 혁신(Innovation)이다. 개선을 요하는 수준이라면 '더(better)'가 합당한 슬로건 이겠지만 혁신을 요하는 수준이라면 '최고(best)'여야 할 것이다. 최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것이기 마련이다. 5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 유머감각 심지어 뒤집힌 상식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이 같은 환경은 유대인들의 국민성을 대표하는 후츠파에 담긴 7가지 정신을 깊이 들여다 본다면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7개의 요소를 조합한다면 그 누구도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며 실패하고 혁신하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형식타파(Informality), 질문의 권리(Questioning Authority), 섞임(Mash up), 목표지향(Purpose Driven), 끈질김(Tenacity), 위험감수(Risk Taking), 실패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 Failure)

3. 새로운 술은 새 부대에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의 의무 복부를 부여하고 있다. 군 복무가 끝나면 곧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가 1년6개월 정도의 해외 여행을 떠난다. 우리의 충청도 면적에 불과한 좁은 땅에서 20여년을 살다 보니 더 넓은 세상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던 것도 원인이겠지만 좁은 공간에 생각을 가두지 말고 무한대로 넓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제2 외국어를 반드시 익히도록 한다. 따라서 영어와 히브리어는 공용어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최소 3개국어를 구사한다. 이들은 해외여행 동안에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무슨 공부를 하여 평생 무슨 일을 하는데 기여할 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귀국한다. 고교 졸업 후 4-5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은 대학에 지원한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20대 초반의 명석하고 창의적인 두뇌 활용을 극대화하여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고교 졸업생 중에서 최고 중 최고를 선발하여 초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수퍼솔져로 키우는 것이다. 고교 성적 최 우수자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테스트를 거친 다음 히브리대학에 위탁하여 3년 만에 학사과정을 마치도록 한 다음 6년을 더 복무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들은 육해공군 어디든 본인이 원하는 곳, 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 장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대우했다. 비록 나이는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으나 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고 소통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기존의 장군들은 엘리트주의 조장, 과다한 예산, 평등주의 위반 등을 내걸고 반대했으며 히브리 대학에서도 학위의 남발에 따른 권위의 추락과 캠퍼스에 찍히는 군화 발자국을 원하지 않았다. 군대의 틀에 박힌 생각은 오로지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알고 탱크를 운전 할 줄 아는 전사들만 필요했고 과학기술을 앞세운 혁신가들의 괴짜 같은 젊은이들은 눈에 가시였다. 이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들은 높은 지능지수(IQ)는 물론이고 창의력, 집중력과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을 기준으로 내세웠고 더불어 불타는 애국심을 강조했다. 탈피오트 프로그램 외에도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모집하는 8200부대는 인터넷상의 보안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도록 훈련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모든 국가의 주요 시설을 은밀히 보이지 않게 감시하는 해킹 역량을 갖추고 있다.

어느 경우 건 혁신적 프로젝트의 수행에는 거센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혁신적 일수록 저항의 규모도 크게 마련이다. 탈피오트는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이론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기에 나아 갈 수 있었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성향을 바탕으로 창의력이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는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상하관계가 생명인 군대라는 환경만 고집한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장군이 회의장에서 커피를 나르고 부하가 장군을 비판하고 심지어 탄핵까지도 가능한 유대인들의 후츠파 문화였기에 가능한 것들이다. 처절한 실패, 욤키푸르 전쟁은 자원이라고는 전무한 이스라엘을 그저 실패로 남지 않고 후츠파 정신을 통해 하드파워중심사회에서 소프트파워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4.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로의 여행, 상상

군대에서 실패는 죽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세계의 군대에서 실패의 용납이란 없다. 전통적 군대의 의미는 무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표준화와 규격에 따르는 교본이 군대가 지향하는 하드파워의 극대화 요소였다. 그러나 인구, 200만 대 2억의 대결이라면 얘기는 달라져야 한다. 비록 6일전쟁이라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곧이어 욤키프르 전쟁을 통해 물리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향했던 것은 유연성과 실패의 용납이라는 두 가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폭발력이 하드파워였다면 정확한 지점에 작지만 정확한 무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소프트파워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확히 포착하여 실시간으로 공중폭파시키는 것은 강한 소프트파워였으며 공중폭파 된 파편들을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유도 낙하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소프트파워다.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면 국경에서 불과 수 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도시라 하더라도 마치 도시 전체에 철갑을 씌워놓은 아이언 돔이 되어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욤키푸르 전쟁 이전과 이후의 이스라엘의 국가전략은 하드파워:소프트파워, 규율:자율성, 표준화:개방화, 복종:질문, 임무:협력, 과거:미래 라는 극명한 대비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게 된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경쟁을 피하는 것이다. 이미 포화된 레드오션에서 서로 다투는 것이 경쟁이라면 아예 새로운 시장을 먼저 만들어 거기서 홀로 독점하는 것이다. 이를 블루오션으로 부르기도 한다.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는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규칙에 뒤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종속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인코스를 독차지하고 달리는 스케이트 선수처럼 추월 선을 양보할 리 없다. 더 이상 힘든 쇼트트렉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스댄싱으로 눈을 돌린다면 거기엔 예술과 스포츠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소프트파워를 요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더 많은 관중과 TV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60년에 걸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을 구가했다면 이는 하드파워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배로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서 원료를 구해와서 하드파워를 동원하여 제품을 만들어 내다 팔았다. 여기에는 증기의 힘, 전기의 힘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라 밖의 혁신기업들은 더 이상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아니다.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다. 거기에는 증기나 전기의 힘을 요하지 않는다. 상상력이라는 원료를 혁신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가치로 만드는 데는 소프트파워라는 새로운 힘이다.

기존의 군대 질서를 욤키푸르전쟁 이후의 소프트파워가 강한 군대로 바꾸는 데는 두 애국심을 가진 교수의 열정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그들이 마주친 수 많은 장애물 역시 만만치 않았다. 하나하나의 장애물을 모두 다 건널 수 있었던 힘은 다름아닌 과거를 지향하는 목표가 아닌 미래를 향한 공감대에 있었다. 기억은 이미 익숙해진 과거로의 여행이지만 상상은 아직 안 가본 미래로의 여행이다. 전에 한번도 안 가본 여행은 설렘을 동반한다. 기억은 레드오션에 머물러 있으나 상상은 아직 경쟁이 꿈틀거리지 않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5. 무한의 자유, 실패의 용인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혀에 닿는 모든 맛에 끊임없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자극이라는 입력과 반응이라는 출력이 뇌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잠시라도 반응에 둔감해진다면 거의가 몸이 아프거나 피로가 극에 달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자극과 반응이 반복되면서 두뇌가 성장하여 지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제는 더 이상 자극과 반응이 아니라 반응의 일부를 스스로 자극하여 입력하는 피드백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느 순간 두 개를 합하면 어떤 맛일까 라는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고 결국은 두 개를 합하여 맛을 보게 되면서 스스로 지능을 확장해 가는 것이다. 탈피오트라는 생각하는 부대를 만든 이유도 이 같은 지능을 앞세워 미래를 선점하여 일찌감치 블루오션으로 나가자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과거의 기억은 미래의 상상력과 대척점에 놓여있다. 기억은 익숙함에 닿아있고 상상은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익숙함을 떨쳐버리고 도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나이가 20대에 극에 달한다는 근거하에 처절하게 자원이 없고 태생부터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선택은 탈피오트 프로그램이었다. 이들의 교육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야만 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독립적인 사고, 호기심, 동기부여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학생들에게 정형화된 길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훗날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 가능한 능력과 가치를 심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은 질문만 하고 답은 알려주지 않는 식이다. 호기심과 열정은 답을 알려주는 순간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비롯하여 아이언 돔을 개발한 마리나 간들린,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빌아이를 창업한 로크니 등 수 많은 사회의 지도자들이 바쁜 중에도 본업 외에 매주 정기적으로 고등학교에 나가 재능기부 자원봉사에 나서는 이유도 끊임없는 호기심의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경영환경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대담한 상상력이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창의적인 상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여기에는 직급에 무관하게 젊은 도전자들을 앞세우고 그들에게 무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실패의 용인'이라는 아량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에 750만명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또 750만명으로 총 1500만명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지금껏 수상한 노벨상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적 능력을 대표하는 높은 IQ지수가 아니라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인 그들의 국민성 후츠파 정신이었다. 사실 2017년 우리나라의 평균 IQ는 106, 이스라엘은 96이었다. 그것은 형식타파, 질문, 섞임, 목표지향, 끈질김, 위험감수, 실패의 용인 등 7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실패의 용인이다. 이 7가지 요소는 창의력을 북돋아 주는 요소들이다. 우리의 문화나 관습에 비교했을 때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요소들이다. 우리의 전통적 장유유서 문화에 비추었을 때 쉽게 다가서기 어렵지만 창의력을 요하는 경영에서 반드시 닮아가야 할 요소들이다.

6. 목표지향의 인재가 빠르게 성장한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남녀모두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입대하게 되는데 복무가 끝나면 의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인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외 체험을 18개월 이상 떠난다. 이들의 체험은 불과 며칠 간의 배낭여행 수준이 아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으나 13세 성년식에서 사실상 부모 친지로부터 미리 받은 유산의 일부를 아낌없이 투자하는 격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학은 우리의 복학생 보다 더 많은 나이의 신입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들은 이미 고교 졸업 후 5년여 기간의 혹독한 경험을 군대와 전 세계에서 쌓아온 베테랑들이다. 이들은 이미 무엇을 공부해서 어디서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입학한다. 따라서 이들의 목표지향적 학업은 그들을 대한민국의 25%에 불과한 좁은 국토에 국한하지 않는다. 아직 미지의 땅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라도 상관없다. 따라서 이들의 목표지향적 성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성장곡선을 그리게 마련이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이 같은 목표지향의 젊은이들 중에서 최고를 선발하여 불과 3년만에 히브리대학 전 과정을 마치게 한 후 6년을 더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압축 학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군대 훈련을 병행하며 3년 만에 대학을 이수하는 데에 있어서 별다른 마법은 없다. 있다면 그것은 그룹학습이었다. 군대 같은 조직에서 매일 24시간 함께 지내며 동기들과 유대를 쌓게 함으로써 그룹의 한 학생이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머지 학생들도 그 속도를 함께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평범한 환경에서 평범한 교육을 마칠 뻔했던 학생들에게도 기회의 지평을 넓혀 진주를 발굴하는 열정이 엘리트교육 탈피오트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이었다. 학업성적 순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자를 동원하여 학생의 역량을 한 껍질 더 벗겨 들여다보며 잠재된 가능성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소홀이 했다면 수 많은 혁신의 기회가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방화벽을 만들어 세계적인 인터넷 보안기업으로 성장시킨 '마리우스 나슛'은 빈민촌의 별로 주목받지 못한 변두리 학교에서 자랐다. 입학사정관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선발될 수 있었고 학업도중에 열등학교 출신이란 이유로 앞서가는 동료를 틈에서 좌절할 뻔한 상황에서 열정적인 심리학교수의 치료와 조언으로 인해 최우수 졸업생으로 거듭나는 보이지 않는 섬세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보안기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 인터넷을 지배하는 나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가 만든 체크포인트는 전 세계 방화벽 시장을 압도적으로 석권하였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 많은 인터넷 이슈는 보안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작지만 섬세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21세기 하이테크 경영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면에는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부양의 의무도 아직 없고 자녀가 없고 직업이 없었다. 필요하면 새벽까지 공부할 수 있고 군대는 자유롭고 그들은 상상의 제한이 없는 자유인이었던 것이다. 21세기 경영환경은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어느 좁은 한 공간 만이라도 자유로운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탈피오트 공간이 필요하다.

7. 틀을 깨는 사고로 1%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야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 넓은 줄 모르고 평생을 지낸다. 깊은 우물에 갇힐수록 보이는 하늘은 좁아진다. 상자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상자 밖에서 보는 것의 차이는 시각에 있다. 안에서 보는 물체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치 거대한 문제처럼 압도해 오지만 밖에서 보는 물체는 거대한 세상의 하나일 뿐 심각한 이슈로 압도하지는 못한다. 탈피오트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똑 같은 답을 거부하며 무조건 다른 시각으로 다른 해법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답을 발견했다면 다음 도전자는 반드시 그 반대적인 해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둘 사이의 틈새를 파고 들게 한다. 혼돈의 모서리(Edge of Chaos)에서 혁신적 해법을 찾는 것이다. 질서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혼돈의 소용돌이를 일부러 찾거나 아니면 일부러 만들어 집어넣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탈피오트 훈련에는 반드시 서로 이질적인 전문가들을 섞이게 함으로써 그들 상호간의 상상력을 섞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들은 세상에 불가능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도록 한다. 내가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들어도 우리 탈피오트 프로그램 어딘가에는 반드시 해답을 쥐고 있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신념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해답의 반대편에 기꺼이 서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정보부대는 욤키푸르 전쟁 직전에 수많은 주변국가의 군사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이 그 전에 수 십 차례 있어왔던 훈련정보의 범주 안에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유대인의 가장 성스러운 안식일, 욤키푸르를 기해 전면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수 많은 정보의 하나에 불과했던 주변국가의 외교관들이 자신의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오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훗날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고 있다. 당시의 판단은 과학적 분석의 결과 훈련경보라는 오판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일단 전면전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시각의 분석이 반드시 따랐어야 했고 그 이후에는 국지전이라는 또 다른 옵션도 당연히 있었어야 했다는 뒤 늦은 지적이 탈피오트 교육방식의 초석이 되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앞으로 21세기 경영의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가장 합리적인 과학적 도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1%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때로는 과학의 함정 밖에 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더라도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과학적 사고에 잘 길들여진 모방형 인재가 아니라 수시로 정답을 부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별동조직, 탈피오트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이후의 경제는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하드파워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소프트파워가 강한 개인, 기업, 학교, 국가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8. 현장에 답이 있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매년 50명씩 모집하여 운영되는데 이들이 3년 과정의 교육기간 동안 원하

는 부대로 현장경험을 쌓도록 배려한다. 처음에는 어린 생도들이 고참 장교나 장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근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장경험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는 것은 교육과정 이수 후 이들이 수행해야 할 미션의 시작이었다. 더구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이라면 어린 생도들에겐 위험하기도 했지만 가장 생생한 혁신의 현장이기도 했다. 지구상 가장 역동적인 혁신의 현장이 전장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현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무기의 혁신은 21세기 들어 레바논과의 두 차례 전쟁이 벌어진 2005년 전 후였다. 전자공학도 출신의 생도가 주축이 되어 전파를 교란, 회피하는 기술이 전투현장에서 고안되고 응급처치 되었으며 개선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적국의 기간산업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 사전에 무력화하는 등 강력한 무력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으로 무력 이상의 보이지 않는 소프트파워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국방만을 위한 역할이 아니었다. 군에서 개발된 기술이 산업으로 전파되어 수 많은 혁신을 일으키며 GDP의 6%가지 기여하게 되었다. 미사일의 광학유도장치를 소형화하여 필켐이라는 캡슐형 내시경 건강진단 기구가 상용화 되었고 인터넷 방화벽도 국방을 위한 방어기술의 산물이다. 저 괘도로 날아드는 모든 미사일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격추시키는 아이언 돔 기술은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도 탈피오트 출신들이 현장에서 받은 자극을 협동적 환경에서 구현한 것들이다. 이들의 생각은 무한히 자유롭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자신감이 그들에겐 가장 큰 자산이다. 거대한 도전은 반드시 실패라는 높은 가능성을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용인하기 때문에 어떤 도전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왜 아직껏 시도하지 못했는지 따져 묻기 때문이다. 창업국가라는 별명으로 더 잘 통하는 이스라엘은 한때 미국 다음으로 나스닥 상장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 창업자의 80%가 최고의 엘리트 부대인 탈피오트 출신들이다.

개업과 창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 영어로 표현하면 확연히 구별된다. 개업은 비즈니스 오프닝(Business Opening)이다. 음식점이 잘 되니 그 옆에 하나 차리는 것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경제의 파이를 넓히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창업은 비즈니스 크리에이션(Business Creation)이다. 비록 작더라도 세상에 그 누구도 아직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경제의 반지름을 넓혀 결국 면적을 키우는데 기여한다. 창업을 통해 기업의 파이를 넓히는 데는 현장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필요하고 이들에게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통해 매사를 거꾸로 보는데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물리적 군대를 생각하는 군대로 바꾸자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자원이 전무하고 안보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나라 이스라엘의 21세기 생존 방법으로 승화되었다. 결과는 창업국가의 건설로 이어진 것이다.

9. 또 하나의 지구, 사이버 세상을 지배하라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다. 하나는 발로 딛고 있는 지구요 또 하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디지털 지구다. 물리적 지구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축구경기장을 세계면적으로 본다면 그 안에 놓인 침대 하나의 면적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그 침대의 1/5

에 불과하다. 이 좁은 면적에서 원료를 구해와 제품을 만드는 산업경제를 일구어 국가를 지탱해 왔다. 더군다나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로 1-2개월 소요되는 먼 거리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를 성공적으로 일구었으니 100m경주를 150m 달리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셈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은 원료를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며 비용을 쏟을 필요가 없다.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담긴 상상력이 곧바로 원료다. 이를 혁신으로 바꾸는 경제다. 상상을 혁신으로 바꾸는 지식창조경제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 디지털 세상이 있기에 가능하다.

디지털 세상은 국경이 없다. 초고속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비옥한 디지털토양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의미하는 ICBM이 하드파워를 대변하는 상징이라면 우연하게도 소프트파워도 다른 차원의 ICBM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IoT(사물의 인터넷), Cloud computing(클라우드 컴퓨팅), Big Data(빅데이터), Mobile network(무선 통신망)의 4개 원소의 조합이다. 이제 우리 사회, 경제, 문화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4가지의 원소를 적절히 결합하여 다양한 비타민을 만들어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제조업 경제가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ICBM을 적절히 섞어서 모든 산업에 맞는 각각의 다양한 비타민 처방을 만든다면 정보통신 기술을 발판으로 다시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디지털 지구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엘리트 부대인 8200부대는 100% 사이버 세상에서 활동하는 숨겨진 부대다. 수학에 뛰어난 영재들을 모아서 사이버 세상의 보안을 석권하는 임무를 갖고 만들어진 부대다. 이들은 키보드 하나로 전 세계의 비밀스런 정보를 손쉽게 가로채기 할 수 있으며 적국 이란에 있는 원자핵 원심분리기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해내고 있다. 이 부대의 규모는 상당히 크지만 작은 스타트업처럼 움직이며 인터넷 보안기술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자체 방위는 물론 보안산업을 리드해가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21세기 전장은 피를 흘리는 처참한 공간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은밀하게 지휘하는 효율적인 공간인 컴퓨터 자판기, 키보드이다. 국토가 좁은 이스라엘이 전쟁이란 환경에서 차별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옮겨왔다는 점은 21세기 경영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육의 힘을 요하는 하드파워의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두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장을 선점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모든 나라가 인터넷 보안문제로 골치를 앓는 동안 이들은 보안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8200부대 출신의 병사들이 창업한 '체크포인트'는 세계 최초의 방화벽을 개발 보급하여 글로벌 인터넷 보안 시장을 석권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창업국가 이스라엘을 선도하는 횃불이 되었다.

10. 영향력

6일전쟁의 완벽한 승리와 욤키푸르 전쟁의 완벽한 패배 사이에는 불과 6년이라는 짧은 시간의 간극이 있었을 뿐이다. 만약 그 간극이 10년 이상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전 후 복구는 거의 불가능에 이르렀을 것이다. 승리의 자신감에 도취된 상황에서 그들은 주변국가들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폄하하기 일쑤였고 무력의 강화가 곧 국방이라는 단순 논리에 안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유 공급을 무기로 서방세계를 장악한 주변 산유국들은 이스라엘로의 무기공급을 원천 봉쇄한 다음 구 소련으로 부터 최첨단 무기수입은 물론 국방체계를 6년 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주요 무기 공급처였던 프랑스의 배반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 겹치면서 간신히 팔레스타인에 입주한 이스라엘의 독립은 불과 10년도 안되어 물거품이 될 뻔한 상황에서 생존권과 자존심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돌파구는 사회 전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국부적인 처방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으며 그 일환으로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앞세워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일단 출발은 젊은이들의 집단인 군대였으나 이들의 역할은 군대에 머물지 않고 사회, 문화, 교육, 경제로 퍼져 나가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으로 자신감을 넓혀 나갔다. 이들은 연간 400mm의 강우량이라는 핸디캡을 세계 최고의 담수화 기술로 바꿨고 이 기술은 현재 52센트의 비용으로 바닷물 1톤을 먹을 수 있는 물로 정제한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 알리는데 기여했고 '네타핌'이라는 회사는 최소의 물로 최대의 농사효율을 높이는 회사로 거듭났다. 이제 탈피오트는 더 이상 군대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전체의 혁신에 기여하는 단계에 진입하면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 고3 교실에서의 관심은 더 이상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아니라 탈피오트를 비롯하여 8200부대 등 엘리트 부대 프로그램이다. 이들의 성과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으나 국가 안보상 일일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격용 무기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수 많은 대원들이 거쳐간 프로젝트들이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역량을 철저히 비밀에 부침으로써 주변국가들에게 더 큰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아직껏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애매모호함을 통해 어림잡을 수 없지만 초대형에서부터 초소형 이동식 무기까지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주변국으로 하여금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심리적인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기술로 승화된 국방연구 결과는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젊은이들로 하여금 창업을 부추기고 그 결과로 세계에서 인구대비 가장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좁은 국토에서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연결되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성공한 스토리는 금세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0을 1로 바꾸어버리는 새로운 도전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이 갖는 절박함의 특징은 누군가가 실수를 하는 것을 넘어선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운전대에 있는 당신을 고의로 밀쳐내는 순간도 살아 남는 방법을 상상하게 하는 수준이다.

11. 보이는 것 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추구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며 약관 25세에 초대 '벤구리온' 수상의 비서로 출발하여 65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세 번의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 그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국부 '시몬 페레스'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라고 주문했다. 그것

은 깊은 바다, 높은 우주 그리고 심오한 생명이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끝이 없는 학문이다.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경영은 인적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적자원의 1차적 힘은 부지런한 근육이었지만 이제는 과학과 기술을 의미하는 두뇌의 경쟁력이다. 독립 후 화려하게 장식했던 6일전쟁 까지는 키부츠와 모샤브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땅을 일구며 인구를 늘리는 땀의 결실이었다면 그 이후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소프트파워를 확장하는 단계였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의 저변에는 상상력을 혁신으로 바꾸는 무형의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었다. 이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의 가치 보다 만질 수 없고 보이지는 않으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한 명의 젊은 두뇌가 수 백 명의 병사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도들에게는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단지 필요한 기술을 찾아와서 엮어내면 된다는 긍정적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사소한 것들 일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헬기 조종사가 진동으로 인해 척추 환자로 실려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한 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하는 대신 의자 등받이에 잉크를 뿌리고 흰 셔츠에 번지는 흔적을 찾아 진동계수를 유추하고 역진동파를 구동하여 해결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대학을 갓 졸업한 수준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갖게 한다. 사소한 현상도 데이터화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시그널을 포착하는 것에서 누구나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용기를 얻는다. 추격해오는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전파를 교란해보고 열 추적 미사일을 따돌리기 위해 전투기에서 조명탄을 던지는 것들이 허용되는 훈련을 했으며 탈피오트는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역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유일한 실험실이었다.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안경인 돋보기를 통해 들여다본 렌즈 너머의 세상에 관심이 많던 젊은이의 호기심이 우주항공 기술을 만나 지상 400Km상공에서 세계 곳곳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정교한 정보를 탐색하는 기술의 개발은 면적도 인구도 작지만 적으로 둘러 쌓인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지켜내는데 있어서 천군만마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심오한 과학기술을 수 십 년에 걸쳐 연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땜질기구를 들이대고 회로를 구성해서 실험해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9년의 군대생활은 젊은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라는 굴레를 훨씬 초월하게 함으로써 제대 후에 창업의 길을 모색하는 자연스런 도장이 되게 한다.

드골이 원유 확보 문제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무기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항공우주사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고 21세기에 들어 레바논이 2차례나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이언 돔이 개발될 수 있었다. 외부의 자극은 그들에게 분명한 스트레스였으나 그것은 언제나 발전을 위해 작동하였다. 결코 뒷걸음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탈피오트 요원들에게는 땜질 도구를 들고 달려가는 또 하나의 실험실 일뿐이었다.

12. 우주를 다시보자, 2차원의 면적을 3차원의 공간으로

2차원의 세상을 3차원으로 높일 수 있다면 좁은 국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 깊은 바다와 높은 우주로 눈을 뜨게 한다. 이스라엘의 부산항에 해당하는 하이파는 레바논으로부

터 불과 30Km,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는 시리아, 네게브 사막의 건너에는 이집트가 둘러싸고 있어서 굳이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로켓포 만으로도 언제든지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페레스 대통령이 젊은이들에게 강조했듯이 발사 후 불과 몇 분 안에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로 실패 한 번 없이 단 한번의 발사로 위성을 우주에 올려 놓았다. 그것도 국가 프로젝트가 아닌 테크니온 공대에서 젊은이들의 호기심에서 출발한 사례로 기록된다. 여기에는 우주공학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가진 로봇공학, 핵 에너지, 유도 미사일,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젊은이들이 섞이고 초정밀 광학렌즈를 탑재하여 세계 곳곳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된다. 이 프로젝트 하나가 안전하고 은밀한 공간에서 수만 명의 스파이를 고용하여 정보를 탐색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게 한다. 주파수 스펙트럼 기술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흐린 날에도 야간에도 줌인 줌아웃을 통해 특정지역을 집중 관찰할 수 있으며 화면을 데이터화 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상호 비교하면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미세한 변화를 정확히 알려주기도 한다.

지평선 까지만 허용하는 2차원의 세상의 눈을 불과 수백Km까지만 올리면 불과 2만 제곱 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나라도 20만 제곱 킬로미터의 큰 나라와 같은 넓은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 새로운 도전은 항상 작고 부족하며 불투명함으로부터 시작된다. 빠른 시간에 크고 풍족하며 투명한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경영이다. 지평선 너머의 세상을 넓히는 일은 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눈의 높이를 올리는 일이다. 천군만마로 100리를 달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가능한 세상이다.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 기업, 학교, 가정은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만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상상력의 가치에 주목한다. 상상력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 가는 기억이 아니라 아직 그 누구도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 안내하는 곳은 당분간 깊은 바다라는 X축과 높은 우주라는 Y축 그리고 심오한 생명이라는 Z축을 향해 무한히 뻗어있다. 이 세 영역은 끝이 없는 학문이며 아직 출발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깊고 높고 심오한이라는 세 형용사는 탈피오트가 지향하는 보이지 않는 철학임과 동시에 21세기 도전하는 기업의 종착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크기와 방향과 깊이에 제약이 없는 유일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이든지 2차원의 시장에서 3차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도전적 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매 도전적 목표는 현재의 가치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가치를 부정하고 경계를 파괴하는 잠깐의 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잠깐의 아픔이 이미 거대한 고통임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기득권자가 아니라 아직 가족도 부양의무도 없는 젊은 도전자들이야 말로 미련 없이 먼저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혁신의 도전 공간에는 유대인의 후츠파 정신의 근간인 '형식타파' 문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13. 미사일 사령부, 단계적 방어망

거대한 국토와 방대한 자원으로 이루어진 나라의 방어체계는 작은 나라의 그것과 달라야 한다. 우선 발사지점으로부터 먼 거리를 날아와야만 하는 특성상 미사일의 규모가 크고 장거리 비행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어 체계는 비교적 여유 있는 긴 비행시간에 정교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좁은 국토와 인접한 대도시간 빈번한 교류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방어체계는 훨씬 복잡해진다. 발사되어 목표물에 이르는 시간이 순식간에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낮은 궤도로 정밀한 유도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는 빈도가 높은 공격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준비했고 그것은 저궤도로 날아드는 수많은 로켓포였다. 위력은 그리 크지는 않으나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주는 골치덩어리였다. 아예 도시를 두꺼운 철갑으로 덮어버리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당면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철갑을 씌울 수는 없었으나 그들은 논리적인 철갑을 상상했고 곧이어 전기전자공학, 물리학, 전파공학, 재료공학 그리고 수학을 총 동원하여 원천적인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 무모하고 야심 찬 계획은 국방부의 최 고위 간부회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불과 20세의 젊은 탈피오트 2년차 생도들의 분임조 연습과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도교관은 비록 연습과제였으나 주목하였고 결국 국가과제로 제안하기로 결심하였지만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수 차례 거절당했다. 그 사이 하마스는 맹렬하게 로켓포를 쏘아댔고 이스라엘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였다. 정부지원이 없자 장관의 서명 없이 시민들의 모금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결국 떠 밀리리 듯이 국가 프로젝트로 지정되었고 이이언 돔은 성공하여 이스라엘 모든 마을들을 거대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철갑지붕으로 덮을 수 있었고 시민들은 비로소 편히 두 발을 펴고 잠들 수 있었다. 여기서 성공한 사례를 발판으로 중거리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데이비드 슬링', 장거리 요격체계들 담당하는 '에로우'로 발전하게 되면서 미국 조차도 연구자금과 과학기술을 더해 이스라엘의 무기체계에 합류하게 된다.

20세의 젊은이들이 상상한 철갑지붕 프로젝트가 단지 좋은 학점을 위한 탈피오트 과정의 전시용 과제에 머물렀다면 연간 2000발 이상의 로켓포가 가져다주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었으며 미사일 요격 시스템 수출을 통한 GDP기여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가장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써 아이언 돔을 무장해가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 시장은 날로 커가고 있다. 탈피오트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언 돔이 상대편 미사일을 요격 후 잔해물이 인구 밀집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지어 잔해를 원하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타격방향제어 기술도 도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끝까지 파고들어 최고의 경지에 오른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탈피오트는 탑의 꼭대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21세기 경영에서 탈피오트는 세계 1위만이 살아남는 블루오션 시장에서 어느 기업, 어느 조직에서나 하나쯤 갖춰야 할 프로그램이다. 이들의 목표는 상상을 머리 속에 가둬두지 않고 꺼내서 기필코 혁신으로 바꾸어버리는 도전에 있다. 아무리 좋은 상상이라도 머리 속에 갇혀있는 한 아직은 0(Zero)이다. 끄집어 내어 혁신으로 만들었을 때 1(One)이 된다.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을 실천하는 조직이 탈피오트 프로그램이다.

14. 두뇌, 국제사회로 가는 여권

실패의 뒤에 남는 것은 오직 극단적인 두 가지다. 파멸과 혁신이 그것이다. '아놀드 토인비'는 모든 인류역사상 도전이 왔을 때 잘 응전한 역사, 문명은 살아 남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했다. 이 때 창의적 한 두 명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들을 창조적 소수라고 정의했다. 토인비가 활동할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던 세상이었다. 지금은 그 누구도 크던 작던 좋은 상상력이 있다면 구현해 낼 수 있는 사이버 지구가 있다. 이제 창조적인 소수도 중요하지만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창의력의 원동력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세상에는 75억명이 살고 있으나 신은 단 한 명도 같은 얼굴을 주지 않았다. 하드웨어적인 외형뿐 아니라 인간 내면의 생각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똑 같은 역량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교육은 당연히 개인의 내재된 각자의 고유역량을 찾아내야 함에 있을 것이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이 같은 인간의 본질적 차이를 존중하고 그 것을 격려하며 끊임없이 탐구하게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힘에 집중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욤키푸르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군대였다. 손발의 부지런함을 두뇌의 창의력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두뇌와 힘, 개인주의와 공익, 군인과 경영인 사이의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두 거물 정치인 '이츠하크 라빈'과 '시몬 페레스'의 경쟁적이고도 치열한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조용한 싸움이 촉발되었다. 집권 노동당 내의 손발과 두뇌의 싸움이었고 제복과 맞춤복의 싸움이었다. 결과적으로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제복이 아닌 맞춤복이 근육이 아닌 두뇌의 힘이 더 강함을 입증해 냈다. 사회주의적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사회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뇌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통용되고 확실하게 보장되는 여권이 되어가고 있다. 개방형 혁신을 앞세우는 실리콘벨리의 아이콘 기업들은 수만 명의 자체 연구원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상상력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면 달나라까지 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 것이 21세기 경영이다.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100개 기업 중 48개는 미국이 아닌 외국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온 아이디어다. 이 중 상당부분이 이스라엘의 엘리트부대 탈피오트와 8200부대 출신이다. 20세기가 원료를 제품으로 만들어 내다 파는 자유무역협정(FTA)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들어 내다파는 자유창업협정(FSA: Free Startup Agreement)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나라의 기술과 특허, 자본이 국가간 장벽 없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국가간 약속이 필요한 시기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8200부대는 이미 미국과는 여권에 찍힌 스탬프가 아니라 엘리트부대라는 두뇌 그 자체가 더 큰 안전을 보장하는 여권에 해당한다.

경영의 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었다면 이들 세가지 요소를 일거에 압도하는 요소로 창의적 지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아이콘 기업들은 원료를 그냥 제품으로 만드는 6일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드는 욤키푸르 시대로 진입해야 함을 탈피오트가 웅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만의 탈피오트를 만들어 최고중의 최고를 상징하는 젊은이들의 두뇌를 깨워야

할 것이다.

15. 탈피오트의 힘은 개인이 아닌 네트워크

세상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기업체계가 재벌이다. 영어 사전에 등장할 만큼 독특한 경영지배 구조다. 산업화를 압축하여 단기간에 일구어 나가는 데에 있어 선단형 지배구조를 앞세워 좁은 땅 대한민국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는 훌륭한 협력체계였다. 계열사 상호간 출자가 가능하였으므로 항공모함과 같은 모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열의 자회사들이 선단을 꾸리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 수 만 명 또는 수십 만 명의 고용을 통해 자원이 없는 나라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재벌의 모습은 이제 20세기의 모습과 다르다. 이스라엘의 RAD그룹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23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고용은 2000명 수준에 불과하고 놀라운 것은 미국 나스닥 상장 회사가 자그마치 8개나 된다는 것이다. 사내에서 수시로 창업이 일어나고 또한 수시로 상장되거나 미국 등 대기업에 인수합병(M&A)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가치는 우리나라의 재벌기업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거대한 산업의 한 축을 일구어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중후장대 기업의 모습이 한국형 재벌이었다면 21세기는 역동성을 앞세워 창업으로 꾸준히 앞길을 열어나가고 곧바로 또 다른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창업의 현장 임을 '창업국가'라는 책을 통해서 알린 '사울 싱어'는 그 성공의 출발점으로 요즈마 펀드와 엘리트 부대인 탈피오트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세상에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창업을 함에 있어서 실패의 위험을 극복하게 해준 최초의 벤처펀드,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혁신을 뜻하며 사실상 잠자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흔들어 깨웠다. 이 때 요즈마 펀드에 열광한 그룹이 탈피오트 대부분 탈피오트 출신들이었다. 상상을 원료로 삼아 거대한 혁신을 추구하는 그들이야 말로 일상생활 자체가 창업정신의 연속이었다. 이들은 제대 후 남들이 이미 일구어 놓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0을 1로 만드는 창업에 관심을 두었고 때 맞추어 요즈마 펀드가 여기에 기름을 붓게 됨으로써 체크포인트, ICQ, 에코랩 같은 혁신 기업들이 탈피오트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혜성처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수 조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되거나 미국의 대기업에 팔려나갔다. 이를 계기로 한 다리 건너면 누구나 다 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업 붐이 일기 시작했고 고3의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 지식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창업의 선도에 나선 탈피오트, 8200부대와 같은 엘리트 부대의 일원이 되기를 최 우선으로 삼게 되었다. 남녀고교 졸업생들은 곧바로 모두 다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데 이들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아니라 엘리트부대 초청장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 같은 도전지향의 탈피오트 그룹은 제대 후 스스로 '탈피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노하우와 상상력을 역동적으로 섞을 수 있는 플렛폼을 갖추고 평생을 함께한다. 그들은 그들만이 소통하는 특별한 언어를 구사한다. 3년간 함께 지내고 나머지 6년간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아이디어를 꾸준히 섞어 융합하면서 익힌 그들만의 코드인 셈이다.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이들만

의 만남인 '탈피밋'은 사실상 세계적인 창업의 트랜드를 제시하는 최첨단의 하이테크 사교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 사회에서 군대는 대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6.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를 지향하라

수학의 큰 갈래가 스칼라와 벡터다. 스칼라는 크기만 정해져 있고 방향은 없다. 벡터는 크기는 물론 방향도 함께 정의된다. 아침에 출근하여 하루 일을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왔다면 스칼라는 출퇴근 거리의 합이지만 벡터로 환산해보면 0이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생각이 맴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면 생각의 합은 0이다. 출발 선상의 생각과 어떤 형태는 많이 달라져 있다면 결론은 일단 0이 아니다. 물론 생각의 종착점이 출발선 보다 뒷걸음일 수도 있지만 생각은 반드시 크기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자원이 없는 나라, 이스라엘의 국가경영은 10년 단위로 생각의 방향을 잡는다. 생각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상쇄되는 에너지를 최소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1948년 건국 후 키부츠와 모샤브를 통해 척박한 땅에 생명이 닿게 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2000년의 유랑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척박한 땅에 겨우 생명을 붙들어 맨 후 이들의 국가경영은 두뇌의 경제로 선회하였다. 70년대에 들어 제시한 생각의 방향이 물이었다. 연간 강수량이 400mm에 불과한 나라의 당연한 선택이었다.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냉각하는 틀에 박힌 생각으로는 기름 함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저 상상에 불과했다. 여기에 역삼투압이라는 생화학적인 기술이 섞이면서 획기적인 혁신의 꿀맛을 알게 되었다. 이 기술은 현재 불과 52센트의 전기료로 1톤의 바닷물을 담수화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기술 하나가 이스라엘을 10년간 먹여 살렸다. 80년대 10년간 혁신의 주제는 원자력 에너지였다. 핵분열 시 튕겨져 나오는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면 분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발전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의 방향에 힘입어 중수를 활용하여 중성자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경제 10년을 먹여 살린다. 90년대에 제시한 방향은 인터넷 보안기술 이었다. 당시 인터넷은 아직 민간에 보급되기도 전이었다. 이들이 제시한 혜안은 향후 10년안에 세계인이 인터넷을 활용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이 보안이란 점에 착안했다. 탈피오트와 8200부대 출신들의 도전은 결국 세계 최초의 인터넷 방화벽 체크포인트를 탄생시켰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선보이는 등 최고의 창업국가로 혁신경제가 완성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시하는 이스라엘의 생각의 방향은 페레스 대통령이 제시했던 3가지 방향의 하나인 '심오한 생명'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깊은 바다와 높은 우주 그리고 심오한 생명을 제시했던 페레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역동성은 생명, 보건, 복지에서 가장 역동적인 창업이 일고 있다. 세계가 올림픽 중계에 열광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애인 올림픽인 페럴림픽에 더 열광한다. 경기를 중계하는 앵커의 입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가 흘러 나온다. "저 선수의 오른쪽 눈에 박힌 망막은 우리 연구소의 어느 박사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왼쪽 무릎에 들어있는 연골은 바이츠만 연구소에서 만든 것 입니다." 미국의 의과대학은 이스라엘의 30배나 많다. 그러나 세계 8조달러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보건산업에서 차지하는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카이스트에 해당하는 테크니온 공대다. 이 대학은 의대, 약학대학을 캠퍼스에 두고 있으나 의사 약사 자격증을 공부하지 않는다. 오로지 의과학, 생명과학을 연구 할 뿐이다. 단지 과학을 공학과 섞었을 따름인데 세계 유수의 대학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17. 탱크, 미사일에서 이제는 생명으로

탈피오트는 욤키푸르전쟁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처절한 패배가 남긴 전쟁의 유산은 거창한 무력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군대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생각하는 전사인 그들에게는 당연히 생각의 자유가 전제되었고 그들은 서로간에 생각의 나눔을 실천했고 나아가 생각의 섞임으로 확장했다. 그야말로 손발의 근육이 아니라 두뇌의 역동성을 극대화 하는데 충실한 반면에 그들 나름대로는 분명한 색깔을 지닌 생각의 소유자였다. 분명한 채도를 가진 물감이 있었기에 더불어 이들을 서로 섞을 수 있었다. 다양한 색의 섞임은 또 다른 색을 만들고 그 것들이 또 섞이면서 무한의 섬세한 화려함을 연출한다. 전쟁 직후의 탈피오트는 탱크, 미사일이라는 하드파워가 주제였다면 지금의 주제는 많이 다르다. 의료, 보건에까지 이르는 소프트파워의 확장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업의 방향이 민첩하게 변하는 세상이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물리력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계선이 분명히 그어질 수 있으나 좀 더 확장해본다면 직간접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산업의 비타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융합되어가고 있다. 시들어가는 제조업도 데이터와의 결합을 시도하면 서비스로 변하면서 수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움직임과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주인의 운동량을 감지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주기적으로 분석관리 할 수 있다면 제품으로써의 신발이 아니라 건강보조 도우미로써의 서비스로 진화 할 수 있다. 자동차도 이제는 더 이상 기계산업이 아니라 정보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나사를 조여서 튼튼하게 만드는 일은 값싼 노동력이 흔한 인도, 중국이 더 경쟁력 있게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어느 자동차의 지능지수가 높은지가 더 관심 있는 주제로 바뀌고 있으며 여기에는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의 역량이 결정한다.

탈피오트의 관심은 이제 인간 생명의 핵심 데이터인 유전자 데이터로 쏠리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에 1억원의 비용이 필요했다. 그 후 10년이 흐르면서 200달러로 줄었고 현재는 100달러 수준이며 2020년 이면 1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은 아예 2020년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는 무료로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주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추세에 비추어 2025년에는 75억 인구 중 5억 명이 자신의 유전체 데이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탈피오트 리더들은 이제 미사일 기술을 엮어서 생화학 영역과 결합하는 융합적 결합에 주저하지 않는다.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한 훈련 중 시력에 손상을 입은 생도가 비록 조종사로의 꿈은 버렸지만 경영학을 공부한 후 자신의 재료공학 기술을 살려서 X테크놀로지를 창업한 후 심장병 환자의 막힌 혈관을 넓히기 위한 혈관 형성용 풍선을 개발하여 세

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그 후 새로운 도전으로 뇌졸중 고위험군, 부정맥 환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심장세동 환자를 구하는 일에 매진한다. 전투기 조종사를 목표로 출발한 청년의 의지는 시력장애도 굴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그러나 트랜드에 정확히 일치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를 의미하는 티쿤 올람을 실현 한 것이다.

[결어]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큰 어른이며 선각자였던 다산 정약용은 실학사상을 만들어 서구열강의 과학기술을 토대로 조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신유박해로 강진에 유배되어 있던 18년간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를 통해 경제, 정치, 국방, 외교의 새로운 자주기틀을 제시하였던 큰 어른이었다. 2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상황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가고 있다. 성장이 멈춘 경제, 다극화를 통해 국가별로 고립되어가는 외교, 극심한 계층적 갈등, 불안한 남북관계 등 우리의 한반도 상황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의 어른이 실종된 지금, 21세기의 다산 정약용과 같은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기대 한다면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작지만 최강의 소프트파워 국가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단연 돋보이는 사례로 드러나고 있음에 비추어 70년간 국가를 창업하여 성공적인 과학기술 혁신창업 국가를 만들어낸 시몬 페레스의 리더십을 이 시대에 반추하여 우리의 것으로 승화해야 할 것이다.